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53.0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42.2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8.1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3.4%), 직장동료/친구(6.8%), 애인(3.4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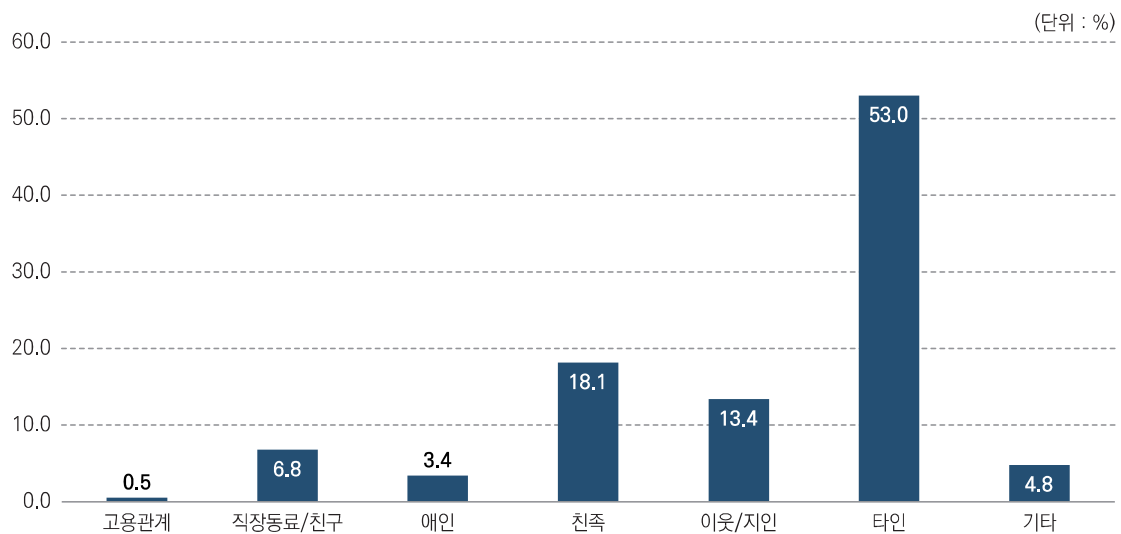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0년 총 180,067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중 34.7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27.6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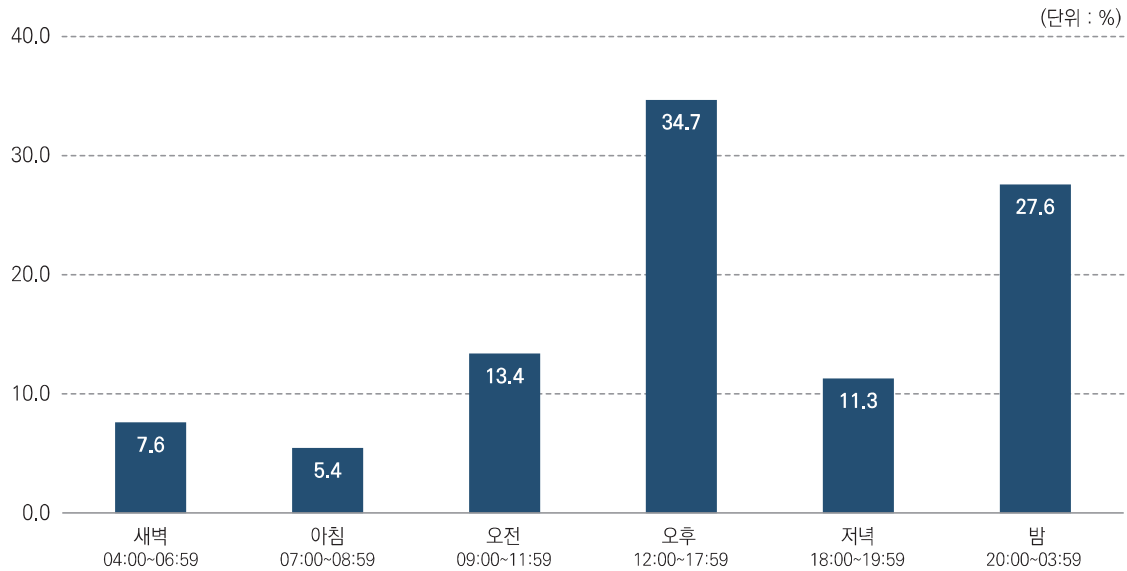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21.7%)를 제외해보면, 노상이 26.1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상점 21.4%, 주거지 14.9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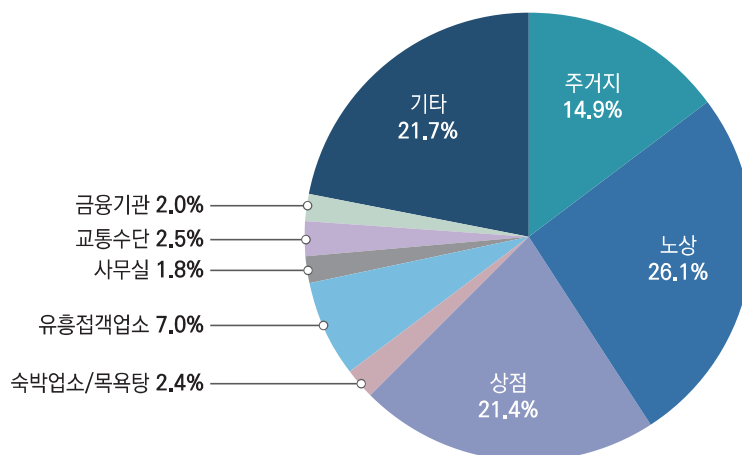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79.1%)를 제외해보면, 침입절도가 10.5%로 가장 많았고, 치기절도²¹ 9.7%, 속임수절도²² 0.8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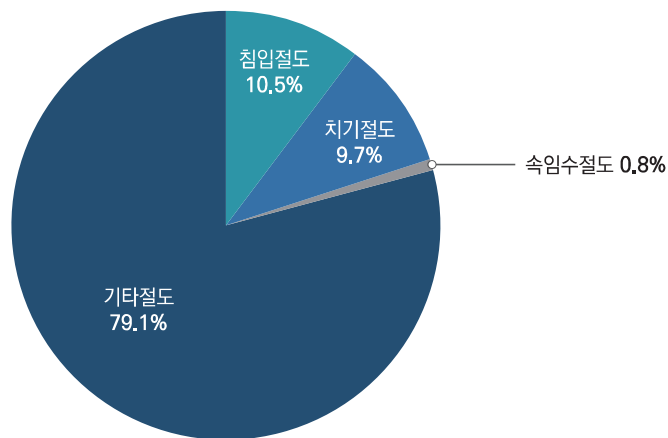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42.1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31.1%, 100만원 초과가 14.3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5.7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1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22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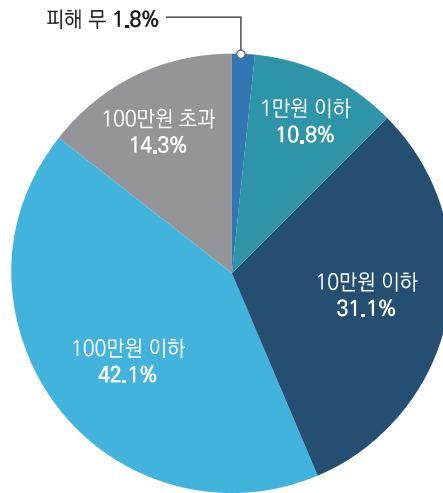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73.9%가 남성이며, 26.1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1세 이상이 전체의 23.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1세~60세(18.0%), 18세 이하(17.3%) 등의 순이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, 19세~30세, 31세~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

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, %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5,113(20.7)	1,953(7.6)	17,066(17.3)
19세-30세	12,429(17.0)	3,307(12.8)	15,736(15.9)
31세-40세	8,783(12.0)	2,797(10.8)	11,580(11.7)
41세-50세	9,713(13.3)	3,795(14.7)	13,508(13.7)
51세-60세	12,277(16.8)	5,466(21.2)	17,743(18.0)
61세 이상	14,633(20.1)	8,485(32.9)	23,118(23.4)
계	72,948(100.0)	25,803(100.0)	98,751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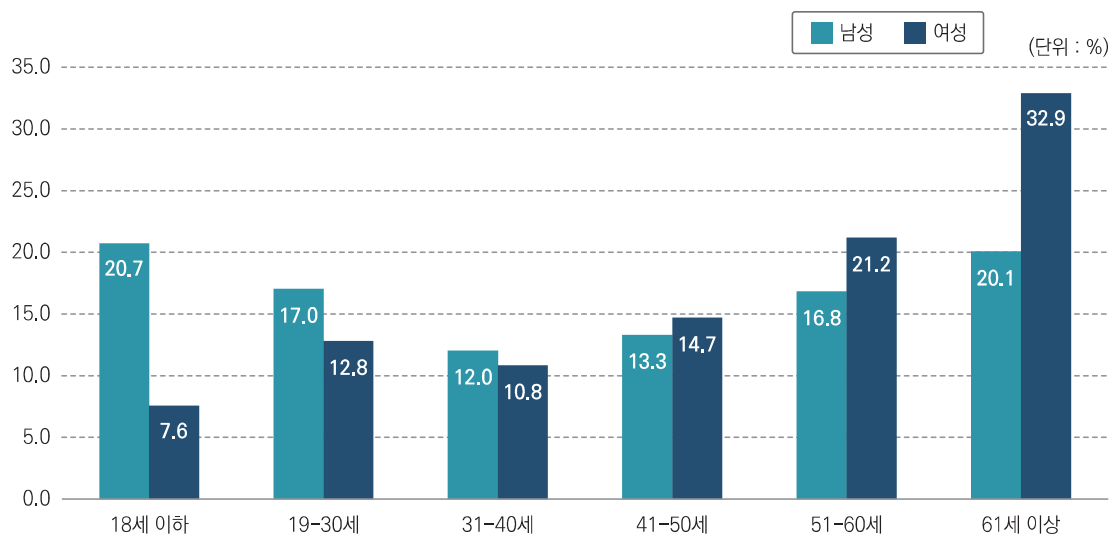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61.9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0.5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6.9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, %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전과없음	9,885(59.5)	23,745(33.1)	33,630(38.1)
전과있음	6,733(40.5)	47,978(66.9)	54,711(61.9)
계	16,618(100.0)	71,723(100.0)	88,341(100.0)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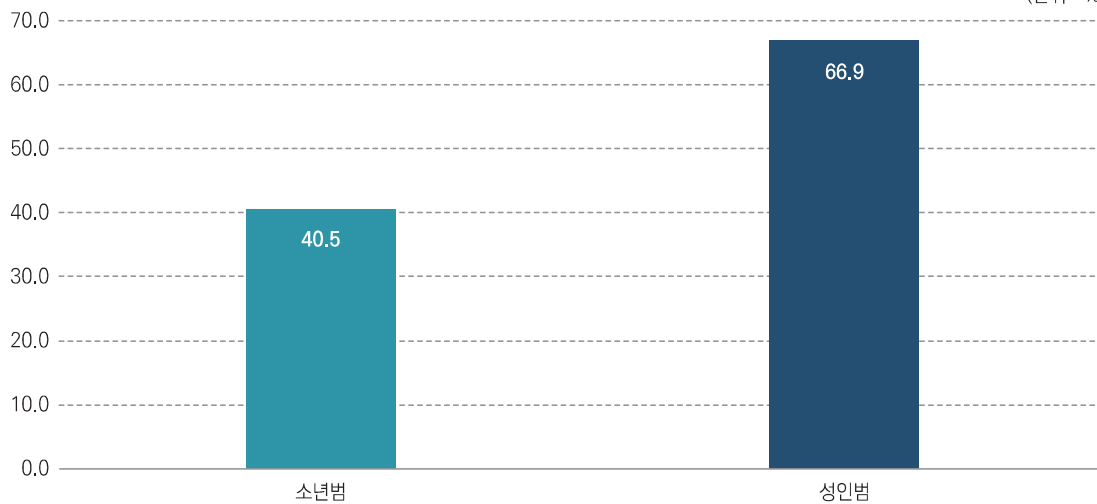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우발적 범행이 37.2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기타이욕(19.0%), 생활비 마련(8.8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/유혹(소년범 21.1%, 성인범 1.7%)에 의해서나 유흥/도박비 마련(소년범 4.5%, 성인범 0.8%)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 마련(8.2%), 유흥/도박비(4.5%), 기타이욕(15.6%)이 28.2%를 차지함에 따라, 우발적(28.5%) 범행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의 원인임을 나타낸다.

표 36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 : 명, %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1,030(8.2)	6,366(8.9)	7,396(8.8)
유흥/도박비 마련	564(4.5)	590(0.8)	1,154(1.4)
기타이유	1,962(15.6)	14,064(19.6)	16,026(19.0)
호기심/유혹	2,662(21.1)	1,208(1.7)	3,870(4.6)
우발적	3,587(28.5)	27,753(38.8)	31,340(37.2)
기타	2,786(22.1)	21,633(30.2)	24,419(29.0)
계	12,591(100.0)	71,614(100.0)	84,20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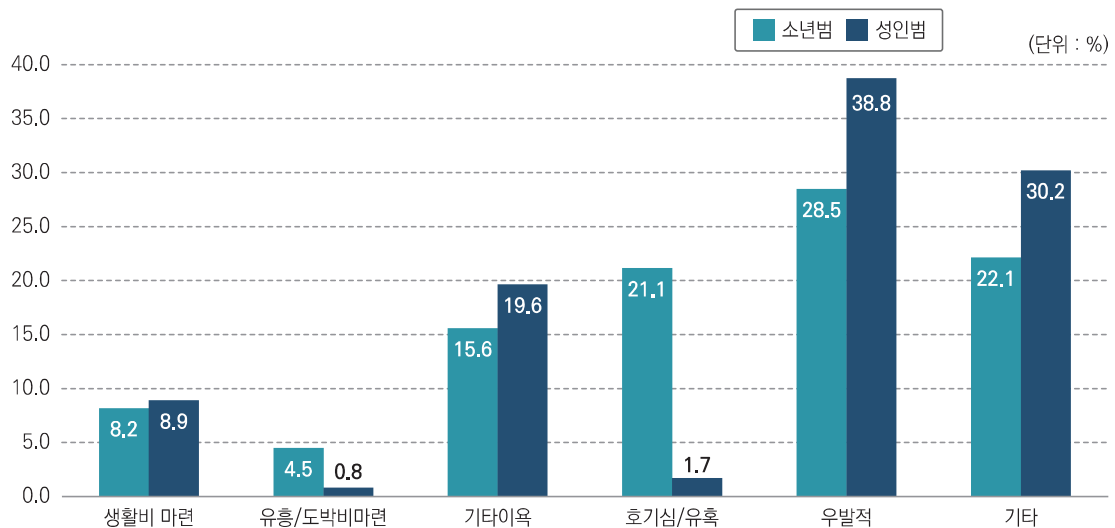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0년 총 354,154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2.6%, 여성이 37.4%였다.